

<가짜열녀이야기>의 형성 맥락과 전승 의미

곽 성 민*

차 례

- | | |
|-------------------------|---------------------|
| 1. 서론 | 2) 등장인물의 설정 의도와 의미 |
| 2. <가짜열녀이야기>의 형성 맥락 | 3) 남성주체의 보편적 시각을 통한 |
| 3. <가짜열녀이야기>의 전승 의미 | 여성의 타자화 |
| 1) 현풍 광씨 가문과의 결부에 대한 이해 | 4.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가짜열녀이야기>를 다각도로 살펴, 이야기를 구전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짜열녀이야기>는 조선후기 생성, 전승된 열녀이야기 중 하나로 당대의 사회적 병폐를 여과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 이야기만의 독특한 서사구조를 통해 조선후기 사회의 한 단면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서사구조와 전승양상으로 당시 민중들의 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가짜열녀이야기>는 대부분이 유사한 서사구조를 공유하며 구전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형성될 당시의 서사구조가 큰 변화 없이 굳어

* 부산대학교

져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그래서 공통적인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다른 설화와의 연관관계를 살필 수 있다. 이로 볼 때, <가짜열녀이야기>는 아지설화와의 영향관계 아래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가짜열녀이야기>의 전승의식을 정확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심 인물인 현풍곽씨 가문의 어린아이와 박문수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가짜열녀이야기>는 대부분이 현풍곽씨와 결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먼저 현풍 곽씨 가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다. 조선 후기 열녀를 대표하는 가문으로 전국적인 위상을 자랑하고 있던 현풍 곽씨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항적 의식의 하나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은 현풍 곽씨에 대한 비판이지만 실상 현풍곽씨를 상징적으로 활용하여 당대의 폐단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진 것이다.

셋째, 여성을 철저하게 타자화시키고 남성적 시각으로 서사 전반을 전개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조선 후기 열녀는 대부분이 죽음으로 완성된다. 초기의 열녀는 유교적 덕목의 실천만으로도 정려를 받았다면, 두 번의 전쟁이 있은 후 죽음이 곧 열녀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열녀 정려에 허술함이 생겨버렸다. <가짜열녀이야기>에서도 간부가 손쉽게 정려를 받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녀 정려에 대한 허술함을 사람들은 비판하고 있다.

주제어 : 가짜 열녀, 현풍 곽씨 열녀, 아지설화, 박문수, 열녀문

1. 서론

<가짜열녀이야기>는 죽임을 당한 姦婦를 어린 시동생이 열녀로 둔갑

시키는 일련의 이야기들로 가짜열녀 만들기 행태에 대한 풍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대부분의 각편은 현풍 광씨 가문과 결부되어 구전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또한 구비설화의 형태로만 전승·향유되는 특징¹⁾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 조선 후기 양반 사대부층의 가짜열녀 만들기 행태에 대한 민중들의 풍자의식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가짜열녀이야기>는 그간 <박문수 설화>에 대한 연구에서 박문수의 인물형을 설정함에 있어 한, 두편이 언급된 정도로 그쳤다. 이들 연구에서는 박문수의 유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짜열녀 이야기>에 대한 구조적인 맥락과 주제의식을 살피기보다는 박문수 그 자체의 의미만을 여타의 설화와 함께 묶어 살펴보고 있어 <가짜열녀 이야기>의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짜열녀이야기>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열녀담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부터이다. 그간 열녀담론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깊어지며 열녀라는 주제어의 문학적, 예술적, 철학적 고찰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열녀이야기의 하위 유형으로 <가짜열녀이야기>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박문수 설화>에 대한 연구에서 단순하게 언급만 되던 <가짜열녀이야기>가 열녀이야기 중 하나의 갈래로 유형화 되며 이야기의 구조적인 맥락과 주제의식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지는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연구는 <가짜열녀 이야기>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

먼저 <가짜열녀이야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킨 것은 이인경이다. 이

1) 이인경은 자신의 연구에서 <가짜열녀이야기>의 단락 중 일부는 야담에서 그 유향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과 사통한 과부가 열녀로 둔갑하여 잘 산다는 이야기는 구비설화와 야담집 등에 두루 수록되어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가짜 열녀를 만드는 과정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이를 통해 당대 가짜 열녀를 만드는 남성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이는 이야기는 현재 구비전승의 형태로만 전승·향유되며, 곧 <가짜열녀이야기>로 지칭할 수 있는 각편들 뿐이다.

인경²⁾은 <가짜열녀이야기>를 현풍 곽씨 가문의 위선을 꼬집는 이야기로 파악하고 과부에게 수절을 강요했던 양반사회의 허와 실을 보여주며 열녀라는 미명으로 불리는 여인들의 허망한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과부의 비윤리적 행위 자체가 청상과부의 재가를 원천적으로 막는 사회구조의 불합리함에 따른 것으로, 어서는 이러한 사회 제도의 모순을 방관한 채 가문 영달을 위해 기지를 발휘한 어린 소년에게 찬사를 보냄으로써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강한 보수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정준식³⁾은 <가짜열녀이야기>를 <곽씨전> 계열의 소설에 대한 대항담론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현풍 곽씨들이 <곽씨전>을 통해 가문의 열녀담론을 공론화시키려 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항 의식에서 민중들이 <가짜열녀이야기>를 전승하며 현풍 곽씨 가문의 위선을 들추어 비판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이인경과 정준식은 <가짜열녀이야기>의 주제 의식을 곽씨 가문과의 결부에서 연원을 찾고 있는 바, 이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현풍 곽씨와 결부되어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논의는 <가짜열녀이야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열녀설화에 대한 연구의 한 챕터에서 이 이야기군을 활용하여 열녀설화의 한 유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짜열녀이야기>의 주제의식을 단편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⁴⁾

앞선 두 연구자의 성과를 필두로 곽정식⁵⁾에 와서 <가짜열녀이야기>

2) 이인경, 『열녀설화의 재해석』, 월인, 2006.

3) 정준식, 「열녀설화의 장르확산과 열녀 이미지의 변모과정」, 『구비문학연구』 제1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271-303쪽.

4) 두 연구자의 연구에서 <가짜열녀이야기>는 현풍 곽씨 가문에 대한 비판적 의식의 발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말부에서 박문수의 행위를 놓치고 있다. 역시 <가짜열녀이야기>의 큰 주제의식은 가짜열녀를 만드는 행태에 대한 풍자라고 볼 수 있지만,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본고에서 장을 따로 마련하여 밝히겠지만 박문수의 등장과 행위는 결코 가볍게 치부하고 넘길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히 세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다.

5) 곽정식, 「<가짜열녀이야기>의 존재양상과 전승의식」, 『어문학』 88, 한국어문학

의 개별 유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는 <가짜열녀이야기>를 크게 일반형과 가문형으로 유형화한 후 또 이 둘을 기본형, 변개형, 확장형으로 세분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가짜열녀이야기>를 형성시키고 전승시켜 온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사회적 욕구불만에 따른 설화담당층의 비판의식이라 보고 열녀이야기에 대한 대항담론을 그 형성원인으로 보았다. 광정식의 이러한 논의는 <가짜열녀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형성배경 및 전승 의미에 대한 정확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⁶⁾ 또한 <가짜열녀이야기>는 구비로만 전승되며 그 편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유형을 총 6가지로 세분화하여 살펴, 과도하게 유형을 나누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서사구조의 동질성에 의한 갈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짜열녀이야기>로 볼 수 없는 각편 3편이 연구대상으로 속해있어 유형분류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⁷⁾ 그리고 당시 사회적으로 팽배했던 열녀담론과 사대부 여성의 성적 욕망에 기인한 일탈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따른 반

회, 2005, 163-184쪽.

- 6) 앞서 밝힌 것처럼 설화는 인접설화와의 연관 속에서 생성, 발전되기 때문에 형성 배경을 살피는 일은 그 설화에 대한 정확한 고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광정식의 논의는 <가짜열녀이야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성배경의 고찰을 소홀히 하여 큰 아쉬움이 따른다.
- 7) <가짜열녀이야기>는 이인경, 정준식이 찾아낸 15편과 본 연구자가 찾아낸 3편, 그리고 『영남 구전자료집』의 1편을 합친 총 19편이다. 이 19의 각편은 시속이 부정한 형수를 죽이고 가짜열녀로 만든 후 열녀문을 불태운다는 골자의 기본서사가 바탕인 이야기들로, 이러한 기본서사를 골자로 하지 않는 이야기는 <가짜열녀이야기>로 삼을 수 없다. 한 갈래를 설정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필요로 하는데, <가짜열녀이야기>의 경우 모든 이야기가 서사구조의 동질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사구조의 동질성을 갈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광정식의 연구에서는 서사구조가 이질적인 이야기 3편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유형화 작업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은 물론, 총 19편의 이야기를 여섯 유형으로 너무 세분하게 살펴 보았다는 아쉬움이 따른다. 후술하겠지만 <가짜열녀이야기>의 경우 전편에서 서사구조의 동질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형의 분류가 크게 필요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대급부로만 이해, 치부하고 있어 실상 설화의 주 담당층인 민중의식에 대한 정확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짜열녀이야기>가 조선 후기 사회적 문제들을 투영하여 심도 있는 이야기로 전승·향유된 사실에 주목하며, 전승양상 및 의미, 형성배경을 두루 살펴볼 것이다. 논의 대상은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18편⁸⁾이다.

번호	제목	대계번호	채록지역	제보자
1	청주 한씨 십이정문(박문수일화)	1-3	경기 양평	최순용
2	박문수의 실수	2-5	강원 양양	김선풍
3	박문수 일화(열녀문의 내력)	4-4	충남 보령	김환기
4	현풍 괄씨는 서방질해도 열녀	4-5	충남 부여	신병희
5	박문수가 감탄한 어떤 남자의 지혜	5-7	전북 정읍	조철인
6	박문수의 열녀 정담	6-3	전남 고흥	신관후
7	박문수 일화(간부퇴치)	6-8	전남 장성	김병학
8	박문수 어사와 열녀문	6-9	전남 화순	이승동
9	박문수 일화(부정한 여자의 열녀비)	6-9	전남 화순	신석휴
10	앞어진 열녀비	6-12	전남 보성	조정심
11	헛 열녀비	7-1	경북 월성	이선재
12	부정한 형수를 열녀로 만든 괄씨	7-14	경북 달성	이재현
13	현풍 괄씨 효자 열녀각	7-15	경북 선산	김기인
14	괄씨 집안의 열녀	8-1	경남 거제	양또순
15	입으로 만든 열녀	8-3	경남 진양	류성만
16	현풍 괄씨 집안의 열녀	8-4	경남 진양	박시원
17	현풍 괄씨 열녀	8-13	경남 울주	김원연
18	어사 박문수와 만든 열녀	8-13	경남 울주	김임순

8) <가짜열녀이야기>는 『구비문학대계』소재 18편 이외에 조희웅, 『영남 구전자료집』4, 박이정, 2003.에서도 한 편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서사구조상 『구비문학대계』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논의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구비문학대계』소재 18편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 외는 다른 문헌 어디에서도 가짜열녀 이야기를 전하고 있진 않다. 이하 『대계』라 칭함.

2. <가짜열녀이야기>의 형성 맥락

<가짜열녀이야기>는 조선 후기 생성, 전승된 열녀설화의 일종으로 열녀담론의 고착화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 병폐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여타의 열녀설화와는 다른 이야기만의 독특한 서사구조를 통해 조선후기 사회의 추악한 한 단면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열녀설화와의 변별점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열녀설화의 경우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것은 열녀설화의 첫 번째 목적이 여성의 열행을 드러내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의 행위에 이야기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여성의 열행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그리고 그 여성의 행위를 남성들이 평가한 후, 곧 남성들은 그녀를 열녀로 제수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열녀설화의 경우 철저하게 남성의 시각에서 전승된 이야기로, 남성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의 형상을 축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일련의 이야기군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짜열녀이야기>의 경우 여성의 존재는 이야기에서 철저하게 거세되며, 전반적인 사건은 남성의 행위에 집중되어 진행된다. 즉 <가짜열녀이야기>는 여타의 열녀설화와는 다르게 행위의 중심이 여성에게 가 있지 않고, 오로지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사구조를 살펴 당시 ‘가짜열녀 만들기’ 행태에 대한 민중들의 의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서사단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박문수가 현풍 곽씨 집안에 열녀가 많이 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하다.
- ② 시동생이 집을 비운사이 과부인 형수가 중과 사통하다.

- ③ 박문수가 간부와 과부를 죽이고 시동생의 행동을 살피다.
- ④ 시동생은 형수가 살해당한 것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자살한 것으로 꾸미다.
- ⑤ 열녀가 났다고 소문을 내고 열녀문을 세운 후 잔치를 열다.
- ⑥ 시동생이 열녀문을 불태우고는 거지가 양심을 품고 그랬다고 하다.
- ⑦ 박문수가 시동생의 기지에 탄복하다.
- ⑧ 박문수가 시동생에게 벼슬을 제수하다.

위의 서사단락은 <가짜열녀이야기>의 기본골자이다. ①에서 박문수는 현풍 광씨 집안에 열녀가 많이 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을 하는데 각편에 따라 박문수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어사라고 처리하거나 혹은 임금으로 대체되어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각편은 현풍 광씨와 결부되어 나타나고, 청주 한씨, 고흥 송씨, 원산 김씨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특정 가문과 결부되지 않은 각편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풍 광씨 가문과 결부되어 나타나지 않는 각편들은 그 편수가 적다. ②와 ③은 ①의 서사단락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시동생이 집을 비우지 않고 머무르는 각편이 존재하며, 이 경우 ③에서 부정한 일을 저지른 과부를 살해하는 인물이 시동생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서사단락 ④, ⑤, ⑥은 서사단락 ③과 함께 모든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 애초에 이야기가 생성될 당시부터 중심서사로 기능하며 별다른 변이 없이 구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간부와 사통한 과부를 죽인 주체가 누가 되었든 ④에서 시동생이 간부의 시체를 직접 처리한다. 경우에 따라서 믿을만한 노비를 시켜 간부의 시체를 처리하고 죽은 과부를 자결한 것으로 꾸미는 각편이 등장하는데, 이 경우 가짜열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새어나갈 것을 우려한 시동생이 그 노비를 살해하는 등의 이야기가 따로 삽입된다. ⑤, ⑥에서는 시동생이 어떠한 방법으로 열녀를 가짜로 만들고 열

녀 정려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중과 사통하여 부정한 일을 저지른 형수를 절행을 행한 인물로 소문을 내고 열녀문을 세운 후 큰 잔치를 열어 열녀로 둔갑시킨다. 그리고 열녀문을 불태워 버려 모든 흔적을 깨끗이 지워 버리는데, 열녀문을 불태우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각편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각편에서는 핵심 삽화로 존재하고 있다. ⑦과 ⑧은 박문수가 등장하는 대부분의 각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벼슬을 제수하기 보다는 가짜열녀를 만드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시동생을 비판하는 각편이 있고, 열녀 정려를 받기위해 박문수를 협박하는 각편이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묵과한 채 떠나갈 뿐이다. 그리고 단락 ⑦, ⑧이 완전 삭제되어 있는 각편⁹⁾이 존재한다.

이상과 같이 <가짜열녀이야기>는 서사단락의 변이가 일어나며 구전되어 온 이야기이다. 하지만 핵심 서사인 단락 ③~⑥이 별다른 변이 없이 대부분의 각편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여타의 열녀 설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구조적 맥락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심 서사와 변이를 보이고 있는 단락들을 통해 전승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전승양상에 대한 이인경의 연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승양상에 대해 이인경은 야담과 소설 등에 과부가 중과 사통하는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과부가 고기를 구워서 중에게 먹인 후 사통한다는 이야기와 이를 목격한 누군가가 중을 제어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여기에 여인의 거짓 열녀 행세 삽화가 덧붙여지고, 현풍 광씨 가문에 십이정문이 선 역사적 사실이 결합하여 새로운 설화유형을 만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여기에 박문수의 어사 행각이라는 또 다른 사실까지 결합함으로써, 이 구비설화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열녀들이 실제로 모두 날조된 것처럼 그리고 있다고 파

9) 이러한 각편의 경우 단락 ①의 삭제가 함께 나타나 박문수 자체를 탈락시킨다.

악하고 있다.¹⁰⁾ 분명 중과 사통한 과부가 열녀로 둔갑되어 잘 살거나 열녀로 정려 받은 과부가 알고 보니 외간 남자와 사통하고 있었다는 골자의 이야기는 <가짜열녀이야기>뿐 아니라 여타의 열녀설화에 많이 등장하는 서사 구조이다. 그러한 이야기는 야담집에도 두루 수록되어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향유된 서사 구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중과 사통하는 이야기가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추론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한편, <가짜열녀이야기>의 전반적인 서사과정은 어린아이가 등장하여 기지를 발휘해 아버지나 가문 등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이지설화와 맞닿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서사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박문수와 어린아이>¹¹⁾이다. 어린아이의 지혜를 확인하는 핵심 삽화의 수용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박문수의 암행과 어린아이와의 만남, 어린아이가 기지를 발휘하여 박문수를 탄복시키고 이에 박문수가 벼슬까지 제수하는 일련의 서사과정이 <가짜열녀이야기>와 너무도 닮아 있다. 여타의 이지설화도 어린아이의 기지를 통해 박문수로 대변되는 기득권층이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주체적인 행동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가짜열녀이야기>의 경우 이지설화와 그 서사구조를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지설화는 그 양과 분포가 방대한 이야기군일 뿐더러, 야담과 소설 등 여타의 서사갈래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생성되어 다른 이야기들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가짜열녀이야기>는 중과 사통한 과부가 열녀로 둔갑되어 잘 산다는 이야기와 이를 누군가가 목격하는 이야기, 그리고

10) 이인경, 앞의 책, 245쪽.

11) 『대계』 2-6, 222~224쪽. 이 이야기는 박문수가 암행을 가던 도중 어떤 집에 들르게 되고, 칠세 남짓의 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알고 보니 지혜가 뛰어난 아이여서 서울로 데리고 올라가 큰 일에 썼다라는 골자의 서사과정을 지니고 있다.

아지설화의 서사관습을 받아들여 가짜열녀를 만드는 주체를 어린아이로 형성시키면서 후에 현풍 광씨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결합하여 하나의 설화유형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가짜열녀이야기>의 전승 의미

앞서 살펴본 바대로 <가짜열녀이야기>의 전승 의미를 정확하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현풍 광씨 가문의 어린아이와 박문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성을 열녀로 둔갑시키는 주체가 어린아이로 설정된 점, 열녀로 둔갑되는 여성에 대한 관심은 철저하게 배제된 채 이야기 전반에서 남성들의 행위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은 현풍 광씨 가문과의 결부 이유이다. <가짜열녀이야기>는 현풍 광씨 가문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박문수가 목격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각편에 따라 현풍 광씨가 청주 한씨, 고흥 송씨, 원산 김씨 등으로 변이되어 나타나거나 특정 가문과의 결부가 안 일어나기도 하지만 과반 이상의 각편에서 현풍 광씨와 결부해 구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¹²⁾ 그 후 가짜열녀를 만드는 주체가 어린아이로 설정된 점, 그리고 이야기에서 여성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짜열녀이야기>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이에 대해 이인경은 현풍 광씨 가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 보았고, 정준식은 <광씨전>등의 현풍 광씨 가문에서 생성, 전승된 열녀전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파악하였다.

1) 현풍 곽씨 가문과의 결부에 대한 이해

조선 후기 孝와 烈을 대표하는 가문을 꼽자면 12정문의 현풍 곽씨 가문이다. <곽씨전>계열의 열녀전이 생성, 보급된 것만 보더라도 열녀 가문으로의 위상은 대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듯 현풍 곽씨 가문이 열녀를 대표하는 가문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많은 양의 열녀 정려에 있었다. 임·병 양란 이후 사회적으로 열녀의 수가 급증하지만 한 가문에서 많은 수의 정려를 받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현풍 곽씨 정려의 성대함은 진작 세상에 알려져 있었다. 나는 고령에 사는 곽씨를 만나 물어보니, “정문에 든 분이 모두 열셋인데, 존재 곽준과 그 두 아들과 두 며느리는 한 집안에서 삼강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형제 네 분도 모두 효로 정문에 올랐으며, 나머지 분들도 모두 효자나 열녀였습니다. 또한 곽씨 집안사람으로 시집을 가서 열녀로 정문에 든 분도 또한 십여 집이나 됩니다.”라고 한다.

아, 거룩하도다! 서울 자연항의 이씨 집안에 여덟 사람이 홍살문에 들어 사람들이 모두 장하게 여겼는데, 곽씨는 이보다 더 많다. 혹시 씨족이 남들과 달라서인가? 또한 가훈의 유풍이 예로부터 전수되어서인가? 또한 거룩하도다.¹³⁾

조선 후기의 문인인 이옥은 그의 문집에서 현풍 곽씨가 받은 많은 양의 정려에 대해 존경의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생각을 논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풍 곽씨 정려의 성대함은 진작 세상에 알려져 있었다.”고 말한다. 이옥은 조선 후기 영·정조 대의 인물이므로 그의 이같은 언급을 통해 효자·열녀에 대한 현풍 곽씨의 위상은 이미 전국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옥이 현풍 곽씨 가문에서 그렇게 많은 효자, 열녀가 나온 연유를 궁금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씨족이 남들과 달라서인가? 가훈의 유풍이 예로부터 전수되어서인가?”라며 유독

13)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 「곽씨정문 『이옥전집』2, 휴머니스트, 2009, 97쪽.

효자·열녀가 많은 이유를 몹시 궁금해 하고 있다. 그만큼 현풍 광씨 가문에서 정려를 받은 효자와 열녀의 수는 비현실적으로 많았다. 하나의 정려를 받기도 힘든데, 현풍 광씨 가문에서는 효자·열녀의 정려를 받은 수가 다 합쳐 십여 집이나 되니,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였을 것이다. 비단 사대부 계층에서만 이런 연유를 궁금해 한 것은 아니다. 민중들 또한 유독 현풍 광씨 가문에서만 효자와 열녀가 많이 나는 이유를 몹시 궁금해 했다. 이들의 이런 의식은 고스란히 <가짜열녀이야기>에 투영되어 박문수가 현풍 광씨 가문에 방문하는 목적으로 등장한다.

박문수는 현풍 광씨 가문에 유독 열녀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한 감찰의 일환으로 문중을 방문한다. 그리고 그 연유를 알고 보니 열녀를 가짜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현풍 광씨 가문에서 열녀가 많이 났었던 이유가 지금까지 가짜열녀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 놓이 열녀가 났는 기라. 열녀가. 아무 소문없이 호냥년을 보고 열녀로 만들었는 기라. 그래 현풍 광씨가 양반이더란다. 그래 양반짓을 하더란다.¹⁴⁾

그래서, 현풍 광씨는 서방질해두우, 응? 서방질해두 열녀랴.(웃음)¹⁵⁾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짜 열녀도 많지만 가짜열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돼.¹⁶⁾

“현풍 광씨는 서방질을 해도 열녀”라고 칭한다는 구전자들의 사설을 보면 현풍 광씨의 열녀에 대한 허상과 그들의 행위 뒤에 숨어 있는 위선

14) <현풍 광씨 열녀>, 『대계』 8-13, 132쪽.

15) <현풍 광씨는 서방질해도 열녀>, 『대계』 4-5, 597쪽.

16) <박문수 어사와 열녀문>, 『대계』 6-9, 233쪽.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를 새삼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현풍 곽씨가 간부와 사통한 여자의 죽음을 열녀로 만들고, 열녀의 정려를 통해 가문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에서, 웃음으로써 그 위신을 뒤집어 버린다. 현풍 곽씨는 열녀가 많이 나는 가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 열녀들이 거짓으로 교묘히 만들어 낸 허상일 뿐, 지금까지 명망 높은 양반인 척 위선을 떨고 있다며 풍자를 통해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가짜열녀이야기>는 현풍 곽씨와 결부된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존재하며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이를 보이는 연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짜열녀이야기>에서 현풍 곽씨가 아닌 타 가문과 결부된 이야기를 보면 청주 한씨, 고흥 송씨, 원산 김씨로 등장한다. 이 중 청주 한씨와 고흥 송씨의 경우 현풍 곽씨 못지않게 열녀로 유명한 가문으로 여러 설화와 문헌에서 그 대단함을 전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가짜열녀이야기>에 투영된 민중 의식은 비단 현풍 곽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발로만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각편이 현풍 곽씨와 결부되어 전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비판적 인식은 분명 현풍 곽씨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라 할 수 있지만 당대 열녀로 통하는 대표적 가문이 현풍 곽씨 가문이었음을 상기할 때, 그리고 타 가문과 결부된 이야기의 경우도 열녀로 대표되는 가문임을 상기할 때, 열녀의 상징적인 가문을 부정함으로써 열녀를 도구화시켜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모든 재지사족들에 대한 풍자 인식이 투영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풍 곽씨의 열녀가 실상은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 위신을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든 열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여타 재지사족들의 위선까지 풍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이렇게 대단한 가문의 열녀도 알고 보면 자신들의 명망을 유지하기 위해 교묘히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당대의 재지사족들이 보이는 위선을 정확히 꼬집을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위의 마지막 인용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 세상에는 진짜 열녀도 많지만 가짜열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돼”라는 구전자의 사설은 현풍 광씨 가문에서 열녀를 가짜로 만들기 때문에 그 가문은 거짓으로 명망을 높였고, 곧 지금껏 위선을 떨고 있었다는 풍자의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상에는 가짜열녀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열녀를 가짜로 만드는 모든 재지사족들의 풍자로까지 의식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2) 등장인물의 설정 의도와 의미

<가짜열녀이야기>는 <아지설화>의 구조적 관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 큼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어린아이로 설정되어 있다. 즉 부정 한 일을 저지른 형수를 열녀로 둔갑시키는 주체가 10세 남짓의 어린아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열녀를 만드는 행위의 주체가 어린아이로 설정된 연유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지설화>의 기본구조는 부과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른과 그것을 쉽게 풀어내는 아이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에 있다. 이때,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나 경험적 지식 등이 풍부한 존재들이 부과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같은 어른의 한계를 해결하는 해결자적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이다. 이는 지배층, 또는 사회적 기득권을 가진 남성들의 무능력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는 존재인 동시에 고정된 사고방식의 한계, 경험적 지식의 무력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발로로, 어린아이가 가진 그것처럼 창조적 사고와 지혜의 힘을 강조한다. 곧 <아지설화>의 어린아이는 기존의 선입견이나 편견, 또는 불완전한 지식이나 고정관념에 대한 대조적 의미를 지닌 존재로 기성에 대한 반대개념, 혹은 일체의 일상성이 모두 부정된 상태 등으로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의 지혜는 새롭고 독창적인 미래의 힘을 의미하기도 한다.¹⁷⁾ <가짜열녀이야기>의 어린아이 역시 10세 남짓의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침착함과 대범함으로

부정한 짓을 해 죽임을 당한 형수를 열녀로 둔갑시킨다. 이는 자신이 속한 가문의 영달을 위한 방편으로, 죽임을 당한 형수가 중과 사통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가문의 위신이 추락하지 않도록 기지를 발휘해 열녀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아지설화> 자체가 기득권,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인식, 그리고 일상성의 부정으로 그들과 대조적인 존재인 어린아이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가짜열녀이야기> 역시 이런 인식이 내포된 것으로 파악 가능하다. 꼭써 가문의 어린아이는 가문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한 형수를 열녀로 둔갑시키지만 이내 그 열녀문을 불태워 버림으로써 남성들이 지금까지 열녀를 가짜로 만들면서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문의 영달을 이룩한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곧 현풍 꼭써 가문에서는 어린아이까지 열녀를 가짜로 만들 만큼 가짜열녀를 만드는 행위가 비밀비재했고, 그에 대한 열녀문은 아직 위상을 드러내며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와 대조적으로 가짜열녀의 열녀문을 불태워 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열녀를 가짜로 만드는 행위 자체를 부정해 버린다. 또 이러한 그의 행위는 자신이 만든 가짜열녀 이외에 남아 있는 모든 열녀가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

한밤중이나 된께, 이놈이 살짝 나가더래요. 나가더만 나무를 보듬어다가 열녀문 안에다 전부 재네(쌓네), 나무를. 딱 보듬어다가 재더니만 불을 딱 대. 불을 대더만,
“당신이 열녀는 무슨 놈의 열녀요?”¹⁸⁾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짜 열녀도 많지만 가짜열녀도 있다는 것을

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4, 웅진출판주식회사, 1994, 371쪽; 강진욱, 「설화에 나타난 진리인식」, 『이화어문논집』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83, 112-114쪽 참조.

18) <박문수의 열녀 정탐>, 『대계』 6-3, 460쪽.

알아야지만 돼.¹⁹⁾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현풍 곽씨의 어린아이는 열녀 정려에 대한 허위성을 스스로 자조하며 열녀문을 불태워 버린다. 가문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한 짓을 한 형수를 어쩔 수 없이 열녀로 만들었지만 가짜열녀는 열녀가 아니라며 부정하고 열녀문을 불태워 버린다. 즉 <가짜열녀이야기>는 열녀문을 불태우는 행위에서 죽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열녀의 타이틀을 부여하고 열녀문을 세우게 한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 곧 열녀를 정려하는 제도의 허술함에 대한 고발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권력을 지속적, 그리고 독점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열녀를 도구화시켜 가문의 명예라는 추상적 이유나 경제적 보상이라는 타산적 동기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이유로 열녀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재지사족들의 행위에 대한 사실적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한편, <가짜열녀이야기>에 어린아이와 함께 등장하는 주요인물이 있는데 바로 박문수이다. 박문수는 <아지설화>에서 어린아이의 지혜를 확인하는 인물로 자주 등장하며 <가짜열녀이야기>에서도 어린아이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는 역할로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문수 또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며,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 첫째는 장례원(掌禮院)에서 포상하여 정려문을 세워 줄 때 관례로 돈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대체로 충신, 효자, 열녀에게 정려(旌闈)하는 것은 국가가 강상(綱常)을 부식(扶植)하고 풍화(風化)를 크게 숭상하기 위한 대병(大柄)입니다. 사실이 있으면 잘 선택하여 세심하게 살핀 다음에 정려문을 세우는 은전을 베풀도록 허락할 수 있는 것이니 더구나 실제로 없는 일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19) <박문수 어사와 열녀문>, 『대계』 6-9, 233쪽.

않아서 사행(事行)의 허실(虛實)은 따지지 않고 오직 관례적으로 납부할 돈 800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허락하여 주니 행적은 허(虛)가 되고 관례로 바치는 돈이 실(實)이 됩니다. (중략) 만일 사사로이 뇌물을 받고서 없는 것을 조작하여 진짜로 만든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장(呈狀)한 사람과 도신을 모두 논죄(論罪)하여 풍화를 장려해야 합니다.²⁰⁾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조선후기의 사회에서는 열녀를 정려함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동반하지 않았다. 그저 돈만 쥐어주면 없는 열녀도 가짜로 만들어 주며, 그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는 행위가 만연해 있었다. 많은 관료들에게 열녀의 정려는 자신들의 이익을 가지게 해 주는 도구이며 지배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녀를 가짜로 만드는 재지사족들의 행위에 동조하고 묵과하는 폐단을 저지른다. 이렇듯 재지사족과 향유들의 유착관계에서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열녀의 도구화는 조선후기 민중이 냉소를 보내기에 좋은 소재였다. 곧 가짜열녀를 만들어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는 재지사족과 함께 그들의 행위에 동조, 묵과하는 관료들에 대한 반감은 커지기 마련이고, 어찌 보면 가짜열녀를 만드는 재지사족보다 더 큰 실망감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관료들의 묵과적, 위선적 행위를 드러내는 인물이 박문수이다.

박문수는 관료를 대표하면서도 항상 민중의 대변자적 역할을 하는 인물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민중들에게는 박문수가 그들이 스스로 해결

20) 『조선왕조실록』, 고종 43년 4월 17일 3번째기사 ; 其一, 卽掌禮院旌褒例納錢事也。夫忠孝烈旌閭, 乃是國家所以扶植綱常, 敦尙風化之大柄也。有其實者, 亦當精擇審知然後, 可許施其綽楔之典, 況乎無其實者乎? 今則不然, 不問其事行之虛實, 惟視例納金八百之有無而許之, 則行蹟爲虛, 而例納爲實也。設有忠教烈實蹟, 必湮沒於千古, 而不得闡揚於世矣, 此, 豈廟堂立法之本意哉? 亟下嚴飭于掌禮之臣, 永廢其所謂旌閭例納錢。凡干係恩典者, 令道臣博採而審知, 然後奏聞請褒。若有循私納賂, 誣虛而爲實者, 該呈狀人及道臣, 並論罪, 以勵風化焉。

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영웅이자, 정의의 심판자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 것이다. 하지만 <가짜열녀이야기>에서는 이런 박문수조차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폐단을 묵과해 버림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관료도 똑같은 폐단을 저지르고 있다는 풍자 의식을 여실히 드러낸다. 신분상 폐단을 밝혀내어 바로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가짜열녀를 만든 주체인 현풍 광씨 가문의 어린 아이를 치하하며 벼슬을 제수하기까지 이른다. 이러한 박문수의 행위는 <가짜열녀이야기>의 주제를 현풍 광씨와 여타의 재지사족들이 행하는 가짜열녀 만들기 행태에 대한 풍자로 국한시키지 않고 관료들의 묵과에 의한 이념의 도구화, 그리고 그들의 이중적 태도 및 그들만의 당위적 질서에 대한 풍자 의식으로까지 끌고 간다.

3) 남성주체의 보편적 시각을 통한 여성의 타자화

<가짜열녀이야기>는 여성은 거세된 채 남성의 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로 주제의식 또한 두 남성의 행위를 통해 표면으로 드러난다. 남성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가 열녀를 가짜로 만들고 그것을 묵과하는 행위다. 앞서 살펴 본 바대로 광씨 어린아이는 죽임을 당한 형수를 가짜열녀로 둔갑시켜 버리고, 이를 목격한 박문수는 그 행위를 묵과하며 오히려 광씨 아이를 치하한다. 이 이야기를 전승하는 향유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두 남성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특수한 행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열녀를 만드는 행위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식을 여실히 보이며, 사설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짜열녀이야기>에 드러나는 두 남성의 행위 중 두 번째는 남성주체의 보편적 인식에 근거한 행위이다. 조선은 특히나 남성의 주체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로 성리학을 근본으로 한 남성 위주의 사상들이 보편적 정서로 자리매김 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여성의 재가금지와 정

절에 대한 이념이다. 여성은 과부가 되더라도 재가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었을 뿐더러 본능적 욕구 또한 거세한 채 평생 한 남자에게 얽매어 있어야 되는 존재였다. 이러한 족쇄는 여성의 성적 본능을 일탈로 규정지었으며, 간부, 음부 등 열녀와 반대급부의 단어들을 파생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 혹은 음부를 징치하는 행위는 남성주체들의 보편적 정서를 통해 정당화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모습의 보편적 정서가 <가짜열녀이야기>에 투영되어 향유되고 있다.

박문수는 중과 사통하는 과부를 발견하고 스스럼없이 들을 죽인다. 그리고 현풍 광씨의 어린아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본다. 이때, 현풍 광씨의 어린아이는 죽은 형수를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고 열녀가 났다며 소문을 낸다. 박문수는 살인을 저지른 행위자이지만 살인 행위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간부를 처리했기 때문에 당당함을 보인다. 현풍 광씨 어린아이도 형수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다만 간부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가문의 위신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열녀로 둔갑시키기 위한 기지를 발휘한다.

그래 놓이 열녀가 났는 기라. 열녀가. 아무 소문없이 호냥년을 보고 열녀로 만들었는 기라. 그래 현풍 광씨가 양반이더란다. 그래 양반짓을 하더란다.²¹⁾

위 인용문을 보면 <가짜열녀이야기>를 전승하는 향유자들 또한 죽임을 당한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보다는 “아무 소문 없이 호냥년을 보고”라고 욕을 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듯 간부인 여성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며 그

21) <현풍 광씨 열녀>, 『대계』 8-13, 132쪽.

녀를 ‘호냥년’이라 비판하고 있다. 즉 이 이야기를 전승하는 향유자들조차도 남성주체의 보편적 인식에 근거한 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며 간부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성에게 여성이 당한 폭압을 정당화하는 의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가짜열녀이야기>에서 이면적으로 찾을 수 있는 주제 의식이다. 남성은 여성을 무참히 살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징치가 정당하다는 남성주체의 보편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여성의 목소리를 거세한 채 여성에 대한 처분의 정당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등장인물과 향유자들의 인식은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타자화를 여실히 보이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여성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연유이다. 중과 사통한 여자가 열녀로 둔갑되어 잘 산다는 이야기의 열녀설화는 <가짜열녀이야기> 말고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야기일뿐더러 야담 등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이야기에서는 대부분 여성의 죽음이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이 건국된 후 여성에게 강조된 덕목은 열행이었다. 세종 14년 편찬된 『삼강행실도』의 열녀편에서 ‘부위부강’의 실천은 곧 열행으로 규정하면서부터 여성의 최고 덕목은 한 남성에게에 종속이었다. 이런 남성 중심적 욕망은 조선 후기에 들어 여성의 희생을 강조하게 되고, 곧 신체의 훼손 혹은 죽음에까지 이르러야 열녀라는 칭호를 내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조선후기 정려된 열녀의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죽음으로써 열녀 정려를 받은 것만 보더라도 초기 유교적 이념의 실천에서 죽음으로까지 확대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와사씨는 말한다.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있는데도 섬기지 않는 경우에 열녀가 되는 것이다. 왕축은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자는 정절을 중히 여기고 음란하지 않아서, 사족의 딸이 초례만 치르고도 과부가 되어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 못하였

다. 이 법이 풍속을 이루어 일반 서민 중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은 역시 그렇게 하였다. 그러므로 온 나라 안의 젊은 아낙네로 소복을 입은 자들은 모두 옛날의 열녀이다. 여기에 남편을 따라 죽은 뒤라야 정려를 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열녀는 모두 죽은 사람들이고 살아서 정려문을 빛나게 세운 경우는 없었다.²²⁾

이옥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부덕의 실현이나 수절을 통해 열녀의 타이틀을 획득하기 어려웠다. 수절을 통해 열녀가 된 사람은 모두 “옛날의 열녀”일 뿐 열녀의 타이틀을 획득하는 필수 조건은 곧 ‘죽음’일 뿐이다. 이옥의 “우리나라 열녀는 모두 죽은 사람들이고 살아서 정려문을 빛나게 세운 경우는 없었다.”라는 언급은 ‘죽음=열녀’라는 공식의 성립을 대변해 준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조선 후기 열녀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 즉 열녀의 정려를 받기 위해서는 여성은 필수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열녀는 명성을 높여주는 최고의 타이틀이지만 그들이 죽음을 통해 얻는 ‘열녀’는 남겨진 남성들의 안위와 가문의 영달을 위한 도구적 방편으로 기능을 할 뿐 정작 당사자인 여성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은 후의 명성뿐이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성은 남성들에 의해 타자화되고 그들의 폭압에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뿐이었다. 이러한 남성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되는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가짜열녀이야기>이다.

현풍 광씨 가문의 과부는 중과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만 죽음을 당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열녀로 만들어진다. ‘죽음=열녀’라는 공식의 성립으로 너무나 허술하게 열녀가 정려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의 죽음에 대해서는 <가짜열녀이야기> 어디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곧 전체적인 서사단락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삭제되어 있고, 그 여성의 행위 또한 간략하게 제시될 뿐이다. 이미 이야기의 향유자

22)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 앞의 책, 217쪽.

들은 죽임을 당한 여성에 대한 관심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남성의 폭압에 의해 타자화 되는 모습만이 그려질 뿐이다. 그러면서 ‘죽음=열녀’라는 공식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즉 죽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열녀의 타이틀을 부여하고 열녀문을 세우게 한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 곧 열녀 정령의 허술함에 대한 고발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짜열녀이야기>는 시동생이 간부와 사통하는 부정한 형수를 죽이고 가짜열녀로 만든다는 골자의 이야기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골자를 공유하는 이야기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18편으로 존재하는 바, <가짜열녀이야기>라는 한 갈래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짜열녀이야기>는 조선후기 생성, 전승된 열녀설화의 일종으로 열녀담론의 고착화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 병폐를 여과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여타의 열녀설화와 다른 이 이야기만의 독특한 서사구조를 통해 조선후기 사회의 추악한 한 단면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서사구조와 전승양상을 살펴 당시 민중들의 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가짜열녀이야기>는 대부분이 유사한 서사구조를 공유하며 구전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형성될 당시의 서사구조가 큰 변화 없이 굳어져 현재까지 전승, 향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인접설화와와의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다. 이로볼 때, <가짜열녀이야기>는 어린아이가 등장하여 기지를 발휘해 아버지나 가문 등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아지설화와 서사구조를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야기의 서두부분에서 어린아이임에도 한

가문의 가장으로 영특함을 보인다는 소개와 함께 핵심 서사에서도 어린 아이인 시동생의 기지와 행위가 강조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관습적으로 전승되어 오던 아지설화의 지혜담에서 <가짜열녀이야기>의 스토리라인이 형성되었고, 이에 새로운 스토리를 창작, 전승시키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선이 건국된 후 여성에게 강조된 덕목은 열행이었다. 세종 14년 편찬된 『삼강행실도』의 열녀편에서 ‘부위부강’의 실천은 곧 열행으로 규정하면서부터 여성의 최고 덕목은 한 남성에게에 종속이었다. 이런 남성 중심적 욕망은 조선 후기에 들어 여성의 희생을 강조하게 되고, 곧 신체의 훼손 혹은 죽음에까지 이르러야 열녀라는 칭호를 내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조선후기 정려된 열녀의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죽음으로써 열녀 정려를 받은 것만 보더라도 초기 유교적 이념의 실천에서 죽음로까지 확대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성은 남성들에 의해 타자화되고 그들의 폭압에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뿐이었다. 이러한 남성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되는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가짜열녀이야기>이다. 현풍곽씨 가문의 과부는 간부와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만 죽임을 당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열녀로 만들어진다. ‘죽음=열녀’라는 공식의 성립으로 너무나 허술하게 열녀가 정려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의 죽음에 대해서는 <가짜열녀이야기> 어디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곧 전체적인 서사단락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삭제되어 있고, 그 여성의 행위 또한 간략하게 제시될 뿐이다. 이미 이야기의 향유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여성에 대한 관심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남성의 폭압에 의해 타자화 되는 모습만이 그려질 뿐이다. 그러면서 ‘죽음=열녀’라는 공식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가짜열녀이야기>는 조선후기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가짜열녀 만들기 행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이야기로, 표면적으로 현풍곽씨 가문에 대한

비판, 가짜 열녀를 만드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인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열녀 정려를 받는 것의 기준이 여성의 죽음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열녀가 아닌데도 죽음을 통해 열녀로 미화할 수 있는 당대 열녀 정려의 허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K C I

참고문헌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980-1988.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 『이옥전집』2, 휴머니스트, 2009.

<논저>

강진옥, 「설화에 나타난 진리인식」, 『이화어문논집』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83, 112-114쪽.

곽정식, 「가짜열녀이야기의 존재양상과 전승의식」, 『어문학』 88, 한국어문학회, 2005, 163-184쪽.

이인경, 『열녀설화의 재해석』, 월인, 2006, 245쪽.

정준식, 「열녀설화의 장르확산과 열녀 이미지의 변모과정」, 『구비문학연구』 제1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4, 271-303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4, 웅진출판주식회사, 1994, 371쪽.

<Abstracts>

The Trends and meanings of <Fake a virtuous woman story>

Kwak, Sung-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in various ways the thoughts of the people who handed down orally <Sham heroine tales>.

<Sham heroine tales> is one of the heroin tales which had been made and handed down orally in the late Jeoson dynasty. It has an important meaning that revealed social ills of the time. Especially it reveals specifically a section of the society in the late Joeson dynasty with a unique narrative structure, we can find out people's consciousness by the unique narrative structure and transmitter's aspect.

First, Because most of <Sham heroine tales> had been handed down orally sharing similar narrative structure,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beginning of at that time has been transmitted until now without a great change. So, we can identify a link between <Sham heroine tales> and other folk tales based on a common narrative structure. Judging from this, it is seized that <Sham heroine tales> was built under <Children's Wisdom story>'s influence.

Second, it needs to examin around the incidents between a child of Hyeonpung kwak's family and Park munsu who are the main characters to study accurately the transmitter's consciousness.

Especially because <Sham heroine tales> is linked with Hyeonpung kwak's family, the reason is to be studied. In the first place, the main reason is critical perception about Hyeonpung kwak's family. Because Hyeonpung kwak's family that had a high position throughout the country represented virtuous women in the late Jeoson dynasty, it is revealed a criticism against Hyeonpung kwak's family. In fact, it revealed a criticism against negative effects at that time, albeit Hyeonpung kwak's family comes up to the surface by using Hyeonpung kwak's family symbolically.

Third, It needs an exact understanding about the act burning Bound by Chastity Rule. Most of the virtuous women in the late Jeoson dynasty concluded by death. Though in the early, a virtuous woman got commendation as practicing confucian virtue, after two wars assignment of the qualification of a virtuous woman became loose appearing a perception that death equals a virtuous woman. In <Sham heroine tales> a wicked woman got easily commendation with death. So people criticize slackness of a virtuous woman commendation.

Key Words : Fake a virtuous woman, virtuous woman, Hyeonpung kwak's family, Children's Wisdom story, Park munsu

■ 논문접수 : 2016년 10월 31일

■ 심사완료 : 2016년 12월 5일

■ 게재확정 : 2016년 12월 21일